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상반기 부안
상설시장 합동소방훈련

부안군은 27일 부안상설시장에서 2024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군과 부안상설시장 지위소방대, 부안소방서 등 30여명이 참여해 화재발생 시 대피 및 화재진압 실제 적응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화재발생경보기 작동 및 전 직원 대피, 미 대피자 응급 구조, 주요 문자와 불꽃 반출,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화재 진화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군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상호간 빠른 대응태세를 갖춰 화재로 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 전반적 방화관리 사항 점검, 화재 발생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현장의 공포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행동을 방지하고 소화기·소화전 사용 등 화재 대응방안 숙달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평생학습관

새로 건립... 8월 준공

정읍시가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 기회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새로 건립한다. 평생학습관은 총정로 93번지(구 정읍교육지원청사)에 리모델링을 통해 오는 8월 중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27억원이 투입된다. 1층은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의 요구에 대응하고, 정읍만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실과 다목적실로 꾸며진다. 2층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의 교실로, 3층은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으로 구성된다. 별관은 제빵실, 도자기실, 음악실, 식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대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숲 활용 관광·치유 기반 조성

심덕섭 고창군수 "양고살재 매력 극대화 관광휴양명소 완성"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 문수산 관광자원화 사업 박차

고창군이 산림과 숲을 활용한 관광·치유 기반조성에 나선다. 특히 고갯길과 저수지에 전망대를 만들어 야경은 물론, 단풍철 최고의 관광명소가 기대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행정 두 번째 방문지로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 사업지'와 '문수산 관광자원화 사업지'를 찾았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27일 현장행정 두번째 방문지로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지'와 '문수산 관광자원화 사업지'를 찾은 가운데,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양고살재는 고창읍 석정리에서 장성군 북이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창출신 박의 장군이 병자호란 때 적장 양고리를 사살한 것으로 기념해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군은 이곳에 총사업비 62억원(도비 30억원 지원) 규모로 감성카페, 전망대, 쉼터, 산악자전거 코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해 고창과 전남 장성간 지방도가 확장 개통되면서 관광고속도로와 백양사역을 통한 관광거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양고살재의 관광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지역의 대표 관광휴양 명소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수산 관광자원화 사업지도 찾았다.

군은 고수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조산저수지에 탐방데크와 전망대,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신기계곡'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문수사애기단풍', 을 상반기 본격 운영을 준비 중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 '국립고창치유숲'과 연계돼 호수-계곡-산림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테마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활동공간과 체험관광 요소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해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치매안심센터, 경증 치매 어르신 쉼터 프로그램 운영

3월 4일부터 운영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오는 3월 4일부터 지역치매 환자를 위한 '더 좋은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증치매환자의 인지자극을 통한 치매중증화 예방과 돌봄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이며 주 2회, 1일 3시간씩 2개(월·수, 화·목)으로 나눠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지훈련 교재를 활용한 인지학습, 생활체조, 원예, 노래교실, 요리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화체험과 농업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비대면 쉼터 프로그램'도 운영해 치매관리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오는 3월 4일부터 지역치매 환자를 위한 '더 좋은 쉼터'를 운영한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매 환자들도 쉼터에 참여해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치매중증화를 늦춰 보호자들의 부담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한

다"고 전했다. 문의 사항은 시 치매안심센터(☎ 063-539-6961, 696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주여건 개선정책 효과 '톡톡'

고창군, 2023년 4분기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 180명 순유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해 4분기 180명이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가동역시 최근 3년 만에 유입으로 전환되며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정의 정주여건 개선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분석이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4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고창군은 4분기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아 180명이 순유입 됐다.

해당기간 순유입 인구는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군(843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2022년 4분기 순유출 98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4분기의 놀라운 성과에 따라 고창군은 2023년 전체 인구가동이 148명 순유입으로 최종 집계됐다. 2022년 -206명, 2021년 -380명 등 순유출이 이어지는 최근 3년 만에 인구유입으로 전환되며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고수황산·무장 공공임대주택,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규모있

는 주택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입축출금에 비롯해 2023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결혼축출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도 확충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신원력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꾸준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고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서 고창군민 10명 중 9명이 "10년 뒤에도 고창에 거주하겠다(89.9%)"고 하면서 전북최고 응답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8기 들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은 것이 전입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 같다"며 "기존의 인구유입 정책을 더욱 강화해 사람도, 일이, 돈이 고창으로 몰려들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측사, 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측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

동당 철거면적 200m2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공립 노을빛어린이집 졸포면 노을애아파트에 개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7일 관내 4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노을빛어린이집을 졸포면 노을애아파트에 개원하고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해 이현기 부안군의회 부의장 및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부안군어린이집연합회장, 예비 학부모 등 15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떡케이크 커팅식 및 기념촬영,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농촌취약지역인 남부안권의 열

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해 공보육 기반 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어린이집 2개소의 폐원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된 졸포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인 노을빛어린이집을 설치했다. 노을빛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에 보육실과 유희실 등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2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됐으며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기에 쾌적하고 깔끔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